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1216개 농가 참여 호응



지난해 보다 68% 증가
올해까지 시범 운영 결실
건고추 등 7개 품목 대상
기상악화 등 가격폭락 대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은 가격 변동성이 높은 양파, 마늘 등 농작물을 경작하는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전북도는 농산물 품목마다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 결정을 거쳐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이 사업은 송하진 지사가 추진한 삼락농정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시범 운영 중에 있다.

전북도는 올해 7개 농작물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며 하계작물로는 건고추와 생강, 노지수박 등이다.

앞서 전북도는 지역·품목별 농업인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사업 추진 주체인 시·군 및 지역농협 관계자, 유관기관 등과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했다.

전북도는 올해까지 진행되는 시범사업이 최저가격 보장사업 참여 농가의 증가로 결실을 맺고 있다고 분석했다.

재배농업인들이 기상상황과 수확시기의 홍수출하 등의 여건에 따라 농산물 가격의 급등락할것에 대비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작황부진으로 최근 5년 내 최고 몸값을 기록한 건고추는 올해 재

배면적의 증가에 따른 가격하락이 우려되면서 재배농가 901명이 신청해 지난해 대비 106% 증가를 기록했다.

특히 올해는 건고추를 경작하는 농업인 참여가 순창은 지난해 대비 8배, 무주는 4배가 늘어나면서 농업 현장에서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 하고 있다는 평가다.

전북도 관계자는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품목을 확대해 수혜농민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다"며 "3년간 시범사업을 토대로 성과분석과 농업인 등 의견을 수렴해 본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전주=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전북도는 2018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사업에 도내 1216개 농가가 참여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참여한 723개 농가와 비교해 68%가 증가한 수치다.



축제 도시 명성 알린 군산

군산시가 주최하고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가 주관하는 '2018 세계축제협회(IFEA) 한국지부 연차 총회 및 제12회 피너클 어워드(Pinnacle Awards) 시상식'이 11일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로 군산시는 '군산시간여행축제'와 '군산야행'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성공적인 축제 개최 도시로서 명성을 세계에 알렸다.

군산시 제공

독립운동가 박준승 기념관 정읍시, 21억원 투입 착공

독립운동가 자암 박준승(1866~1927) 선생을 기리는 기념관 건립 공사가 11일 시작했다.

정읍시가 21억원을 들인 기념관은 산이면 평사리(부지 6000㎡)에 지상 1층, 전체 건물면적 170㎡ 규모로 건립된다.

전통 한옥 형태로 3·1 만세운동 100주년 기념일인 내년 3월 1일 개관한다.

기념관은 선생이 평생을 바친 독립운동의 발자취와 업적을 보여주는 자료로 채워진다.

자암은 1919년 3·1 만세운동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이다.

이후 일본 경찰에 체포돼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옥고를 치렀으며 고문 후유증으로 별세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 충남 서천시와 문화관광 힘 모은다

13일 공동마케팅 실무 협의체 회의 개최

군산시 근대역사박물관과 충남 서천시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이 오는 13일 관광 활성화와 공동마케팅 등을 위한 실무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들 기관은 지난 2월 상호 합의, 6인 실무협의체 운영, 금강권 관광광역화 사업

등을 하기로 협의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서는 3개 전시관 순환버스 운영, 상호 연계 방안, 공동 홍보물 발간 및 교환, 홍보 방안을 논의한다.

풍부한 역사문화자원·해양·생태관광 인프라를 활용한 관람객 유치 및 마케팅 활

동, 3개 기관 간 문화관광 교류활동, 공동마케팅을 위한 시설 및 홈페이지 공유 등도 협의한다. 특히 군산시와 서천군을 잇는 동백대교의 연발 개통 이후 발전방향도 모색할 예정이다.

김중규 군산시 박물관관리과장은 "동백대교 개통 후 핵심 관광지인 3개 전시관을 연계해 전북과 충남의 관광 광역화를 모색

할 계획"이라며 "세 기관의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정책도 발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근대기 역사문화유산과 해양문화를 주제로 한 전시관 등을 운영하는 군산의 관광거점이다.

2013년 문을 연 국립생태원은 5400여종의 동식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5년 개관한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7만500점의 해양생물 표본을 전시한다.

군산=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익산시 주민들, 악취문제 해결 나선다

청와대 청원·서명운동 전개

익산지역 악취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들이 직접 문제 해결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민들은 시의 악취문제 해결의지에 의구심을 표명하며 청와대 청원은 물론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11일 익산시 부송동·영등동 주민들에 따르면 이 지역에 악취가 연중 계속되고 있음에도 행정에 민원을 제기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공단에 발생하는 악취는 물론 축산 악취까지 더해지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악취는 하절기 뿐만이 아니라 연중 계속되고 있어 생활은 물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시에 민원을 제기해도 달라지는 것이 없으며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미 300여명의 시민이 이에 동참했으며 공단지역 인근 아파트에서도 입주자 대표회의 등을 거쳐 지역 문제로 이슈화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악취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게시한 상태다.

주민들은 또 악취문제 해결 촉구를 위해 집회까지 고려하고 있다.

앞서 익산시는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악취 저감을 위한 다각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다"면서도 "법적 관리기준과 시민이 원하는 체감악취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익산=유영명 기자 yjy@kwangju.co.kr

순창군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시행

순창군은 지난 10일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위해 '아기 출생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기 출생기념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출생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지역사회와 출생축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것이다.

발행은 11일부터 시작했으며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 사진 1장을 지참해 생후 1년 이내에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성명·생년월일·주소·발급 일자 등이 기재된다.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몸무게·키·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아기에겐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돼 아이가 자랐을 때 큰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강호 순창군 민원계장은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 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사업



아기 출생기념 주민등록증.

을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확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군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합계 출산율은 2.02명으로 전국 2위에 올랐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

고창군 '책마을 해리'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예술·교육·소통의 장

고창군은 해리면 월봉마을 '책마을 해리'가 정부의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이번 공모사업은 PPT발표 심사 등을 거쳐 전국에서 지자체 8개소가 선정됐다.

책마을 해리는 이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됐다.

'마을공방'은 개인주의 심화와 노인 소외문제, 세대 간 갈등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 단위 거점 공간이다.

책마을 해리는 누구나 예술가, 어디나 예술 공방 프로젝트로 다양한 인문, 예술 공작 활동에 필요한 공간 조성, 지역 학교와 만나는 움직임은 예술 공방, 책 학교인문창업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이를 통해 지역의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나아가 인구유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나서게 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상가(빌딩) 매매 - 진월동 -

- 대지 1,132㎡
- 건물 4,739㎡(공실없음)
- 매가 78억
- 수익률 6.8%

☎ 010-2602-7266

BN 테이크아웃(포장판매)의 혁신
전기/가스가 필요없는 참숯 떡갈비/통닭 비비큐 훈연기
현재영업중인 음식점/점포 장비구입, 메뉴 추가로 대박창출!!

제품크기
● BN 1500 : 1440(L) x 650(W) x 1250(H)
● BN 1000 : 940(L) x 650(W) x 1250(H)

본사/영업본부 : Tel. 02-2029-8188/9 Fax. 02-2029-6404
공장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9번로 45(장덕동)
호남영업본부 : Tel. 062-953-2995 Fax. 062-953-2998

2층 주택, 매매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번지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혁신도시에서 15분, 신북에서 5분
- 집마당까지 차량진입가능, 텃밭(10평)있음
- 시세 - ~~1억 4000만원~~ 사정상 싸게 팝니다.
- 일시불 8400만원

H. 010-6834-7400

방수 부분설비(누수)

부위별 방수시스템!
분야별 방수시스템!!
최적의 방수시스템!!

“최선을 다하여 성실 시공합니다”

광주 062)676-7719
전남 061)375-7719
H.010-3629-7719

무료견적 시공상담

방수전문그룹 CHILMAN CMTECH
광주,전남 시공회사 (주)씨엠테크복합방수

걱정하지 마세요!!
“칠만표방수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유사품, 모방품에 주의하세요!!
시공 및 제품 판매 / 셀프시공가능

(주)씨엠테크복합방수 “소비자가 인정했습니다”